

광양시, '발상의 전환! 공직자 정책 아이디어 개발 워크숍' 성료

인구 증가·문화재 활용안 등 정책 아이디어 16건 개발

4일간 공무원 81명 참여...관련 부서 검토 후 시정 반영

광양시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2기에 걸쳐 공무원 81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 공직자 정책 아이디어 개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시정발전을 이끌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 마련됐으며, 직원 간 결속력 강화를 위한 친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시 역점사업 현장 방문 ▲직무 소양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특별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실현가능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정책 아이디어 발굴 주제는 ▲광양시에 직

장을 둔 다른 지역 거주자 인구 유입 방안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관사 활용방안 ▲인근 지자체 대형 행사·박람회 계기 관광객 유입방안 ▲광양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개발 방안 등 4개 과제가 제시됐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경력직과 신규직 공직자의 고른 참여로 실현가능한 독창적 정책안이 다수 발굴되는 성과를 거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책 아이디어는 ▲광양시에 직장을 둔 다른 지역 거주자 인구 유입을 위한 '광양 아이 성년 축하 적금(1기)' ▲광양

시의 랜드마크 개발을 위한 '광양 상상 테마파크 속 랜드마크 설치(1기)'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관사를 활용한 '해방 stay' 프로그램(2기) 등 총 3건이다.

'광양 아이 성년 축하 적금'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 6년간 적금을 매칭 지원하자는 제안이며, '광양 상상 테마파크 속 랜드마크 설치'는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와 연계해 지하 쇼핑몰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랜드마크를 건립하자는 제안이다. '해방 stay'는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관사를 리모델링해 근현대 역사체험을 비롯한 1박 2일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시는 최우수 과제를 포함해 이번 워크숍에서 발굴된 16건의 정책과제를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류현철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



해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기반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됐다"며 "앞으로도 치열한 고민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여수시, 하천 재해예방 '연등천 저류지' 연내 착공...389억원 투입

2018~2025년까지...35만톤 규모 저류지·하천시설물 정비

여수시가 연등천 주변지역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연등천 저류지'가 연내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국·도비 253억 원을 포함한 389억 원을 투입해 '연등천 재해예방사업'을 추

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0년 빈도의 홍수량에도 대응할 수 있는 35만 톤 규모의 저류지를 설치하고, 하천시설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연등천 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중 전체가 편입되는 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 내 분할 필지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이로써 연등천 저류지는 집중호우 시 홍수량을 적절히 분배시킴으로써 하천의 역류와 범람을 예방하는 한편 평상시 저류지에 확보

된 맑은 물은 연등천 유지용수로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책로, 전망데크, 자전거도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연등천 저류지가 시민들이 찾아 볼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연등천 침수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통한 주변지역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연내 공사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기자



소상공인연합회 고흥군지부 첫 발...발대식·출범식 가져

고흥군은 지난 16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실실에서 전남 소상공인 연합회 임원 및 회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연합회 고흥군지부 발대식 및 신임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14년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로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이다.

이번에 출범한 고흥군지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수렴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여론을 전달하는 '소상공인 정책 허브 역할'을 맡고 소상공인의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이날 축사를 통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내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활동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군에 전달하면 군은 몰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경자 신임회장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우리 지역 법정 경제단체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고흥군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목소리를 공론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보성군,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협약식 개최

보성군은 지난 15일 보성군 새마을회, 부평1동 주민회 등 2개 단체와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주관 '2023년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공모 사업에 선정된 보성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협약식을 마련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보성군, 보성군 새마을회, 부평1동 주민회 40여 명이 참여했다. 앞으로 보성군과 2개 단체는 수질과 수 생태계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 환경정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보성군은 3천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관 공동 환경정화 활동, △수질정화시설 식재, △주민 환경 홍보·교육, △도랑 살리기 사업 전·후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도랑 살리기 사업을 통해 마을 도랑에서 물장구치며 가재 잡던 예전의 모습을 회복시키고 생태계 건강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현순기자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혐오시설의 고정관념을 깨다'

"최첨단 기술과 융·복합시설 결합한 지역의 랜드마크로 미래세대를 위한 시설물로 조성"



순천시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매주 2회 시민단체, 언론인, 종교단체, 직능단체 등과 함께 폐기물처리시설과 지상 융·복합시설이 잘 갖추어진 하남유니온 파크를 다녀왔다.

선진지 견학은 시민들의 폐기물 발생 억제와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사례를 공유하고자 마

련됐다.

한편, 시는 선진지 견학과 함께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234명 중 83.3%는 순천시의 생활폐기물 발생과 처리가 심각하다고 답했는데 매우 심각한 32.5%, 심각하다는 50.8%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에 대해 어떠한 생

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응답이 66.6%로 가장 많았고 '필요한 시설' 22.6%, '싫지만 설치해야 하는 시설' 9.4% 등의 반응이 나왔다.

또,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시설을 설치'하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9%로 나왔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찬성 31.2%, 찬성 47.8%, 보통 19.2%, 반대 1.7%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와 지상 융·복합 시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순천시 청소지원과 조점수 과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우려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누가 여기를 소각장이라고 생각하겠어?'라는 어느 시민의 말처럼 최첨단 기술과 융·복합 시설을 결합한 지역의 랜드마크로 미래세대를 위한 시설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